

문살(門箭)을 주제로 한 작품전

(1888. 7. 1~7. 23 : 알파인 뉴욕 화랑)

作品의 해석과 의미

辛 永 常

東洋畫科 教授

1988년 알파인 뉴욕 화랑에서의 본인의 전람회는 문살(門箭)을 주제로 하여 그 형태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변용시켜본 추상 작품들로 이루어졌다.

본인은 문살의 사실적 구조나 형사(形似)적 측면을 위주로 한 형상성이 아닌 窓戶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변용시킨 사의성(寫意性)에 주안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한국의 전통 가옥 구조 속에서 한국인의 삶과 더불어 애호되어 왔던 창호와 문살을 본인은 한국인의 원형적 사유 구조와 時空觀이 담긴 매체로 생각해 왔다. 이에 맑고 담백한 한국적 感性이 담겨진 내면 공간으로서의 문살의 이미지를 線의 일회성과 공간 구성에 의해 형상화 하였다.

우리나라의 窓戶는 그 구조와 형태가 다양하고 詩的 운치와 선비적 아취의 여운을 풍부하게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紙의 素性에 의해 자연의 섬세한 자취와 음향을 그대로 전달시켜 줌으로써 外部의 음영과 時間性의 추이를 체험케 함으로써 사물을 관조하게 하고 내면적 의식을 일깨워 준다.

창호의 세계는 결국 한국인의 원형적 삶이 담긴 小宇宙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水墨의 임리한 성질과 종이와의 交感에 대한 속성을 십분 활용하여 삼각, 육각, 팔각 등의 다양한 살창과 교창, 띠살문 그리고 정자(井字)창, 완자(亞字)窗 등의 형상을 우연성과 일회성을 살려 즉흥적으로 구성해 나갔다.

墨과 膠水의 조절에 의한 濃淡 변화로써 최소한의 조직적 문살 패턴을 구성한 다음 동어반복적 패턴화를 피하여 새로운 공간구성을 시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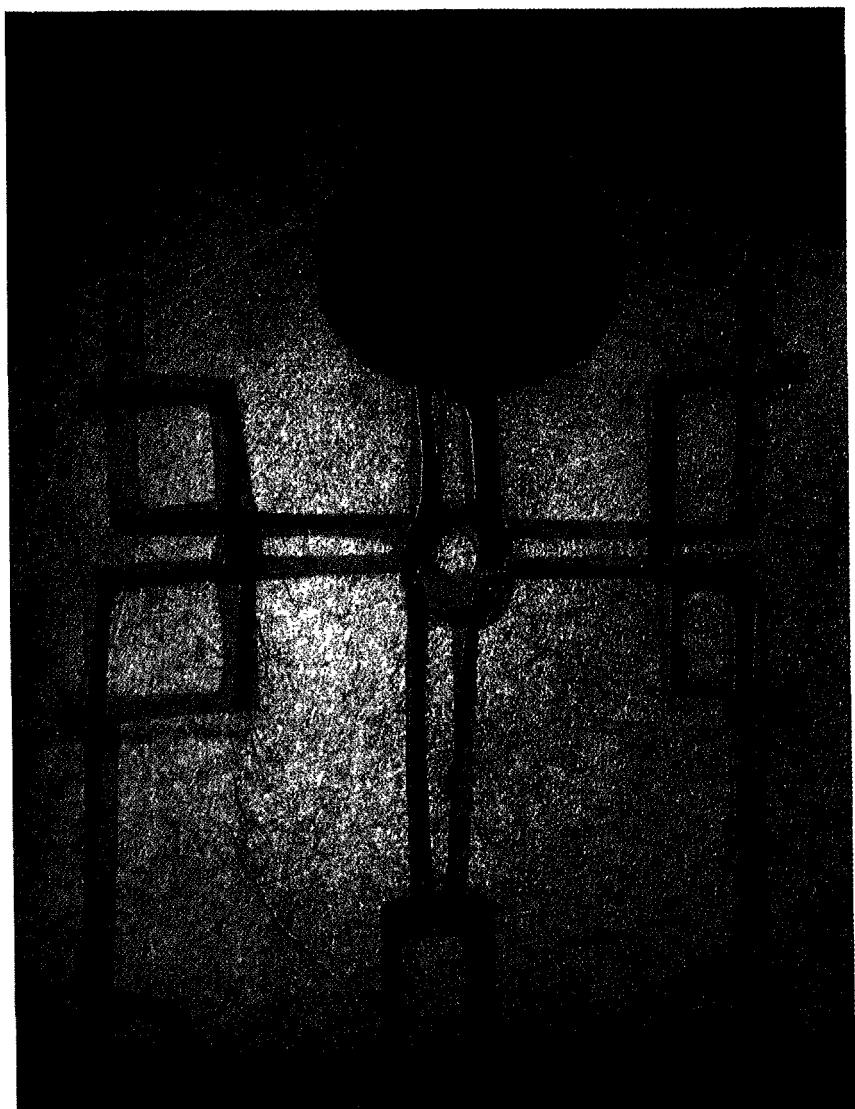
였다. 아울러 灰色調를 방사형으로 가미하여 宣紙의 백색 공간과 다른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공간의 다중적 接寫를 피하였다.

墨의 번짐과 농담 변화에 의해 문살의 형태와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구성적 實在性을 떠나 空과 虛 그리고 無僞의 정신성으로 귀납하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문살이라는 메타포가 물질적 造形思考의 소산에 머무르지 않고 險陽의 對位性에 의해 内面과 外部 세계의 간극없는 一元的 통합이나 만남을 이루는 정신성에 도달하도록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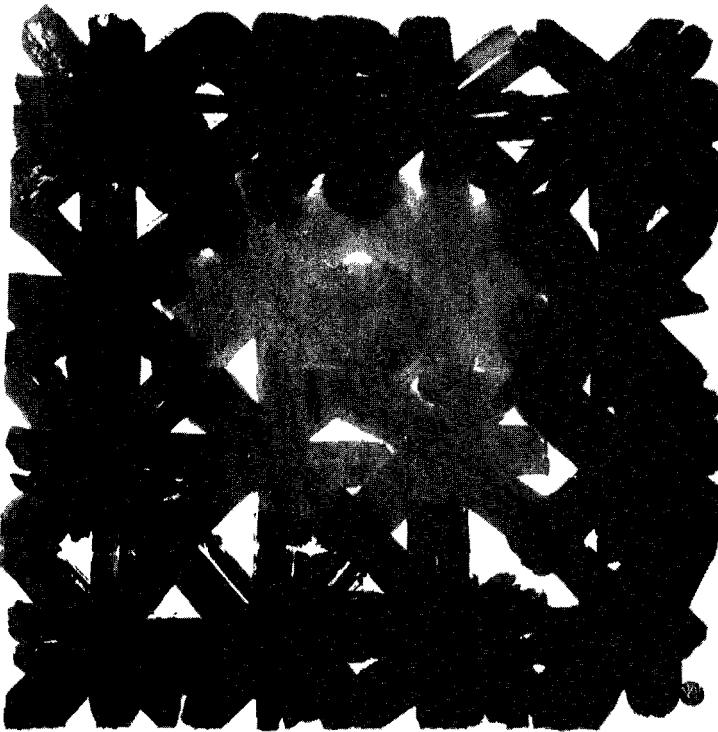
따라서 서구의 기하학적 추상 회화가 가지는 非人間的 기계주의나 메카니한 선면의 구조성이 아닌 物質의 人間化, 物性의 精神化를 꾀하려 한 것이다.

東洋의 門의 世界는 外部와의 단절이나 차단이 아닌 外部와 内面 세계의 소통에 그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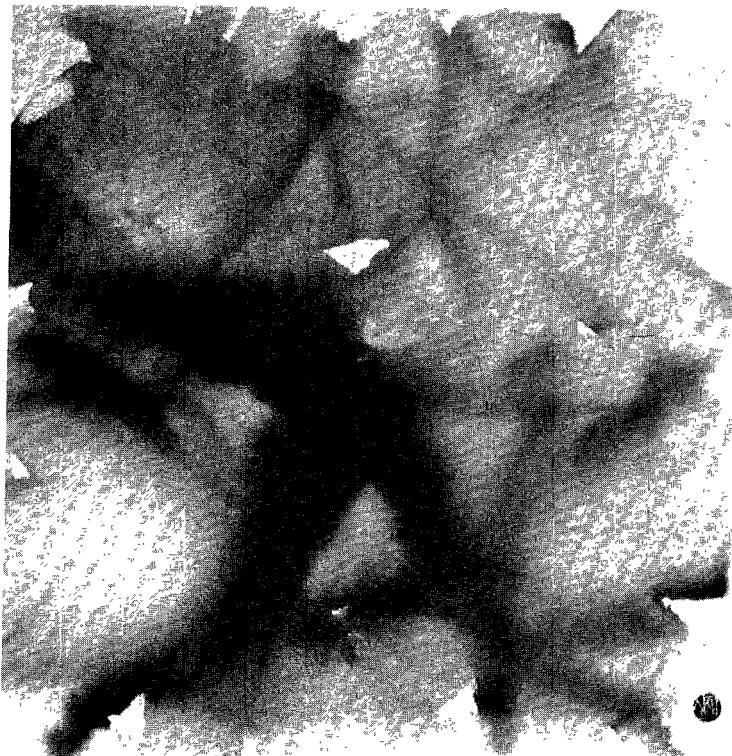
본인은 알파인 화랑에서의 전람회를 통하여 이러한 門의 세계를 心因의 “서정성의 측면에서 客體를 바라보는” 主觀의 시각에 의해 조형화하려 하였다. 主觀의 心象에 의해 문에 어리는 자연 풍광과 時間性의 추이를 포착하려 하였으며 線描의 확산과 추상적 변용으로써 즉흥적으로 이를 구성해 나가려 하였다. 석양의 태양과 아침의 빛, 소슬한 바람과 움직임의 기미 등을 포착함으로써 문과 창을 통해서 자연의 오묘한 변화를 체험하고 관조하려한 것이며 이러한 본인의 심미적 인식체계를 서구인들에게 공감시키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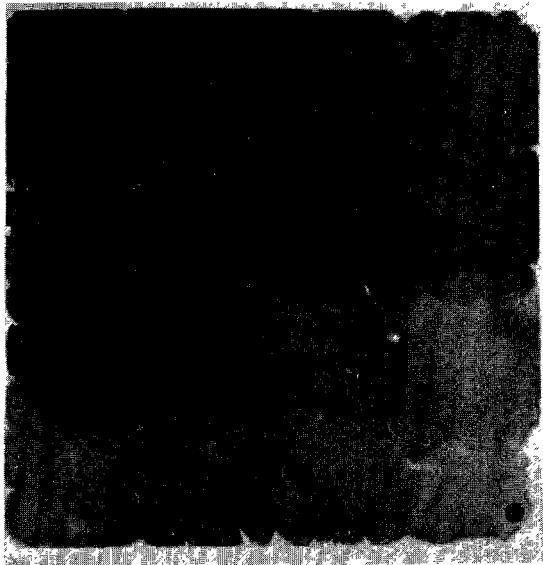
陽地 572 한지, 수묵채색, 銀粉 55×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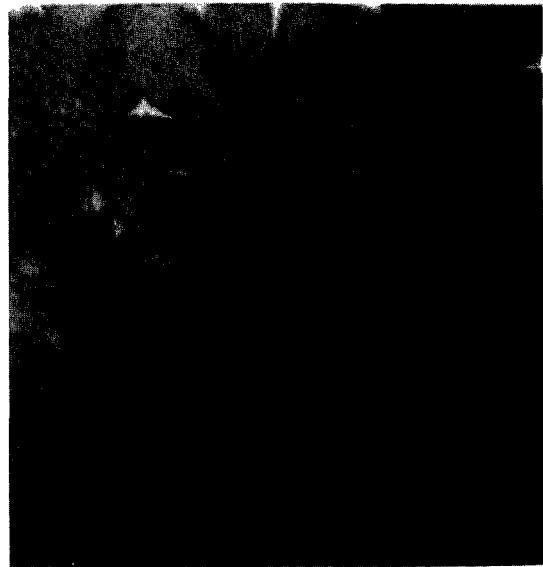
正午 한지, 수묵 126×126cm



陽地 562 옥양목, 수묵 68×6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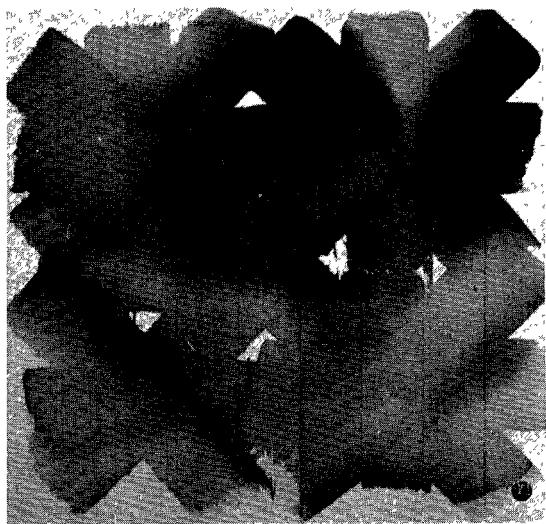
陽地 568 화선지, 수묵 64×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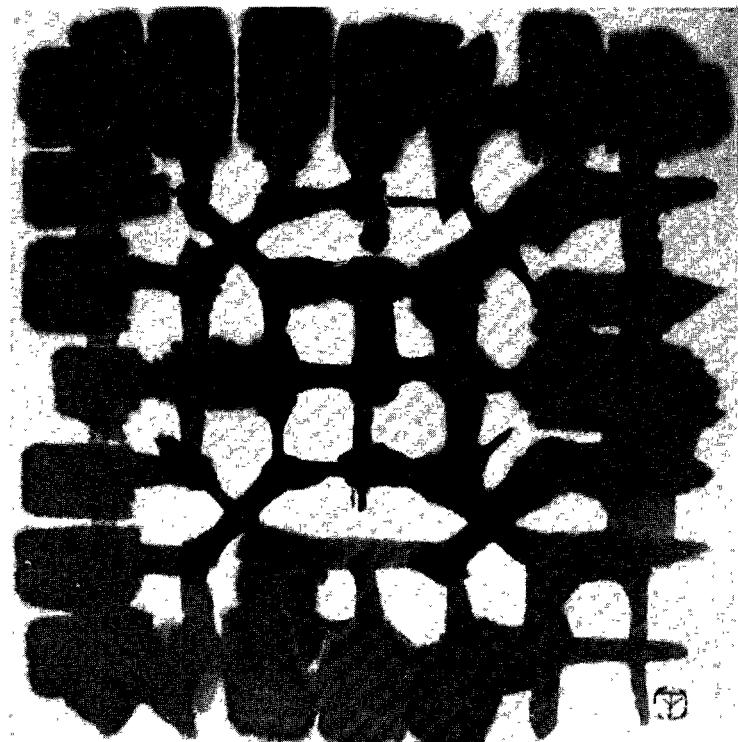
陽地 567 한지, 수묵 64×64cm



陽地 569 화선지, 수묵 64×64cm



陽地 567 한지, 수묵 64×64cm



陽地 566 화선지, 수묵 64×64cm



陽地 570 화선지, 수묵 64×64cm